**은혜로 받은 구원**

**<에베소서 2장 1-10절>**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기독교 교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여러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두 구절 모두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이미 완결된 사건이란 뜻이라기보다, 이미 체험된 사건이란 의미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이미 우리들 속으로 뚫고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전과 다른 새로운 실재 안에 있음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며 묘사하는데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되었다!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입고 나타내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앞에 ‘오직’이란 말을 덧붙여 그의 종교개혁 프로그램의 첫번째 구호로 삼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결핍과 기대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전한 공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된 것을 채우려 애쓴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해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니며, 우리가 기대하고 욕망했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그만큼 채움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막연히 “이건 아닌데…” 느낄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때에, 우리는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누리는 이 새로운 구원의 실재에 대해 그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걸 욕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 이전의 상태는 구원에 관한 한 ‘무지’의 상태입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주어질 것들을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후에야, 그 새롭게 주어진 더 나은 실재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이전에 내게 결핍되었던 것, 그래서 진정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며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또 한번의 ‘무(無)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욕망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과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듯한 모습의 메시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결핍으로 인식한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력과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자랑스레 여기는 행위에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욕망에서가 아닌, 우릴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발원하여,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가장 완전한 공짜의 선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없이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릴 위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에게 실효성을 갖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이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다시 마틴 루터에 따르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에 앞서 값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은혜의 프레임 안에서 행동하고 관계맺습니다. 최근에 본 어느 드라마에서 인상깊은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스위스 한 마을에 핵 폐기장 건설 투표를 했는데, 처음엔 주민 60%가 찬성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마을에 핵 폐기장을 건설하면 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주민 25% 찬성. 어찌된 일일까? 돈을 준다는데, 어째서 찬성률이 뚝 떨어졌을까? 처음에 그 스위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어딘가 짓긴 지어야 돼. 우리가 책임지자. 그게 옳은 일이야.” 근데 거기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뭐가 옳은 거지?’에서 ‘뭐가 나한테 이득이지?’로… 일단 그렇게 돼 버리면, 왜 그 위험한 걸 내 앞마당에?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한 글에서, 선물이 더이상 선물이 되지 않는 경우를 묘사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것을 주고나서 받는 이에게 일정한 반응을 기대할 때, 그는 그의 선물을 ‘거래(exchange)’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받는 이에게 빚진 자의 느낌과 부담을 불러일으키며,

선물을 더이상 선물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좀 극단적인 사고전개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많은 것을 거래와 교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관계맺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거래의 회로’가 아닌 ‘은혜의 회로’ 속에서 움직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10:8)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신 권면입니다. 되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준 것으로 상대를 압박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요? ‘은혜’ 의식이 약해진 곳에서 ‘거래’ 의식은 더 강하게 고개를 들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배고픈 자들이 배고픔을 만족시켰다는 점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우쳐주신 사건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14:20)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결핍’의 경제가 아니라 ‘넘침’의 경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눈에는 ‘사치’의 경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결핍을 느낀 그것을 딱 그만큼 채움받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걸 받을 자격도 없던 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값 없이 받았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은혜의 회로’를 따라 내가 거저 받은 것을 내 주위 사람들과 거저 나누며 살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이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말할 때, 이는 태초의 창조사건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무’로부터의 창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은 이와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무’로부터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거듭남, 즉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가는 과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답답함과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 부서지거나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기대에 반하여 행동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부수고 제거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 빚어짐을 위해 우리를 무(無)로 돌리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55:9)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눅1:53)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스스로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부드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진정 나를 위한 좋은 선물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빚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 은혜로 새로 빚어짐을 말한 뒤에, 비로소 바울은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직 ‘선하다’ 불릴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흐른 결과이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거저 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기대를 초월하여 가장 좋은 것을 제때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 빚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회로’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으로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